



“슈베르트 음악은 따뜻한 위안이죠”

‘김정원과 친구들’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늘 마음속에 친근하게 남아 있는 광주를 선택했다.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우연히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고 했고 그게 앙상블이었다.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를 만나 즐겁게 공연했는데 청중들이 부담없이 즐기더라. 첫째 게스트가 가수 김동률과 하림, 바이올리니스트 백

처음 만났다. 9년 차가 나는데 아주 속이 깊은 친구더라. 음악적인 성향이 비슷하고 다른 부분들도 잘 통했다. 언제 재밌는 거 해보자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연주하게 됐다. 주미 강은 같은 소속사에 있기도 하고, 새로운 연주자와 무대를 꾸미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요청했다. 성민제는 지난해 MIK앙상블과 ‘송어’를 연주할 때 만났다. 이번에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데 이 곡을 더블베이스로 듣는 건 처음이라 나 역시 기대가 많다.”

-레퍼토리를 슈베르트의 곡으로만 썼다. 공연 타이틀도 ‘슈베르티아데(슈베르트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연주하고 감상하며 즐기는 음악회)’고.

▲어렸을 때는 쇼팽이나 리스트, 라흐마니노프처럼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악가들의 곡을 좋아했다. 반면 슈베르트는 심심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비엔나로 처음 유학갔을 때 14살이었다. 가족 품을 떠나서 혼자 첫 겨울을 보내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집 3~4분 슈베르트 생각이 있었다. 친구집 놀러가듯 그곳에 자주 갔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솔직히 슈베르트는 무대에서 연주하기 무서운 레퍼토리다. 화려하고 복잡한 음악은 그렇지 않은데 슈베르트처럼 어색이 많은 음악은 연주자가 숨을 곳이 없다. 나이가 들면서 어색이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순수한 감동이 있는 슈베르트 음악이 더 좋아졌다. 광주 시민들에게도 슈베르트의 음악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앨범 녹음이나 연주 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런던심포니와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5번’ 앨범은 몇년간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여서 의미있었다. 올해는 솔로곡을 묶어 음반을 발매한다. 4월 20일에는 수원시향과 그리고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하고 김지연·송영훈과 슬라브 음악을 주제로 챔버 공연도 준비중이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피아노 소나타 13번’, ‘네 손을 위한 관타지 F단조’, ‘아르페지오네소나타 A단조’, ‘피아노 트리오 2번’이다. 5만원, 4만원. 문의 070-8879-84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일한 지방 공연 마음 속 친근한 광주 선택”

송영훈·임동혁·클라라 주미 강·성민제 최강조합

“나이 들수록 여백있는 음악 좋아 슈베르트 선택”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을 열고 있다. 7번째를 맞는 올해 공연이 기대를 모으는 건 ‘친구들’로 참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면면 때문이다. 송영훈(첼로), 임동혁(피아노), 클라라 주미 강(바이올린), 성민제(더블베이스) 등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을 광주(14일 오후6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볼 수 있는 건 흔치않은 기회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김정원과 11일 전화 인터뷰했다.

-정쟁한 멤버들이 모였는데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공연으로는 광주가 유일하다.

▲솔직히 광주가 클래식 공연이 잘 안되는 곳이라 쉽게 찾았오기 어렵다. 특히 이번에는 게스트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 스케줄 짜기 힘들었다. 어렵게 모인 터라 지방에서 여러 차례 공연하고 싶었지만 스케줄상 딱 한곳만을 골라야 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대구와 부산으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아버지(김춘섭 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도 광주에 있고, 대구·부산에서는 독주회도 많이 했던 터라 고향은 아니지만

주요, 첼리스트 송영훈이었다. 대중가수지만 클래식 음악을 같이 해보자고 했고, 클래식을 접하지 않았던 가수 팬들이 그 이후에 클래식과 친숙해지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파가 있는 공연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획하게 됐고 올해 7번째를 맞게 됐다.

-최근에는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중심이 되는 포맷으로 바뀌었다.

▲초기엔 대중가수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가 어울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공연이 크로스오버 공연이라는 선입견이 생기더라. 그건 아니라고 봤다. 어쩌면 클래식 아티스트들만의 공연이 이전 공연보다 지루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지 않나(웃음). 고정팬들도 많이 생겨서 클래식 중심으로 출연진을 썼다.

-멤버들이 정말 화려하다. 매년 좋은 친구들과 연주하는데 어떤 인연들이 있나.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과 연주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음악회를 통해 친구를 만들어나가는 것 같다.(웃음) 공연을 준비하면서 너무 즐겁고 뿌듯하다. 임동혁은 지난해 백

봄... 살아있음의 풍경

정상섭 개인전 18일부터 대의동 갤러리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화사한 봄꽃을 들고 관람객을 만난다. 정씨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 디에서 19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에 내놓은 작품은 계절을 맞아 꽃망울을 터트린 화사한 꽃들이다. 작품들은 꽃으로 본 세상에 초점이 맞아 있다. 캔버스에 꽃들을 가득 채워놓고 산과 정자 등 풍경을 기초처럼 자그맣게 그려놓아 꽃세상을 연상하게 한다.

또 강렬한 원색의 대비와 자잘하게 등장한 사물들은 동화속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사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그의 화면 속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차등과 구분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면 전체가 달과 별과 동물들이 노니는 자그마한 우주다.

‘흰꽃 바람’ ‘기다림’ 등의 화폭에서는 그려진 대상들이 하나 또는 둘로 줄어들면서 공간감이 확장하는 변주를 보여준다. 작가의 시선이 사물의 세계를 떠나 무한하게 펼쳐지는 시공간의 구조화, 형상화



‘여인의 향기’

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미술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 나들이길에 그림감상

전남문화재단 ‘사랑의 가족 나들이전’

지난 2월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을 연중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이 진도 남도전통미술관에 문을 열었다.

남도예술은행을 운영하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진도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인 신비의 바닷길축제(25~28일), 진돗개 페스티벌(5월 3~5일)을 앞두고 기획전 ‘사랑의 가족 나들이전’을 진행중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은 한국화가 광창주목 등 진도출신 작가들의 작품으로 한국화 22점, 서양화 4점, 문인화 8점, 서예·서각 6점 등 다채롭다.

기획전을 관람하고 남도예술은행 홈페이지(www.nartbank.com)에 후기를 남기면 기념품도 증정한다. /김미은기자 mekim@



박신애 작 '사색의 계절'

외규장각 의뢰 반환 주역

고 박병선 박사 유고집 발간

외규장각 의뢰 반환의 주역인 고(故) 박병선(1928-2011) 박사의 유고집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제2권이 출간된다.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제2권은 박사가 2008년 펴낸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의 후속편.

박사는 병인양요를 둘러싼 프랑스 정세와 조선을 침략한 로즈 제독의 보고서 등 프랑스 자료를 번역 정리해 집필을 마무리하던 중 2011년 11월 프랑스 현지에서 타계했다. 박사의 조카인 은정희 씨가 박사의 뜻을 잇고자 후속편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박사는 프랑스 유학 후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했으며 역사 연구와 문화재 반환에 크게 기여했다.

/연합뉴스

신혼집 도둑들 코믹 로맨스

‘실례합니다’ 27일까지 금남공원 공연일번지

“우연히 신혼집에 숨어든 도둑들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

극단 DIC이 창작극 ‘실례합니다’를 공연한다. 27일까지 오후 7시30분 광주 금남공원 옆 소극장 공연일번지.

정문화씨가 극본과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유쾌한 코미디극이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던 딸이 신혼여행을 가자 이 여사는 깜짝 선물로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떠난다. 하지만 정작 신혼집에 숨어든 건 어리숙한 두명의 도둑.

한집에 우연히 같이 있게 된 두 사람은 갑자기 찾아가 아파트 반장에게 신혼 부부 행세를 하게되고 서로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게 된다. 둘은 서로 추억찾기를 하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정일행·양성영·이현숙·송민준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222-7008. /김미은기자 meki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홍스페이스 SPACE

단롭침대 광주 대리점, 천연라텍스 100%
세계최초 최고 라텍스, 유기농 항균커버, 척추질환 교정,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